

[REPORT_TYPE: DAILY_CLOSE]

[STATUS: PARADOX_DETECTED]

[TIME: 17:01 KST]

AI의 환희와 매크로의 현실

2026.07.21 글로벌 시황 및 전략 브리핑

▲ 00018752

-0.15%

▼ -0.02%

국내 증시 폭등 (KOSPI Surge)

KOSPI 6,747.95 (+3.56%)

Driver

AI/반도체 실적 기대감 및
대규모 외국인·기관 순매수.
삼성전자(+6.15%) 주도.

지정학적 매크로 경고 (Macro & FICC Warnings)

WTI 원유 \$82.84 | 금 \$500
| 美 국채 10년물 4.588%

Driver

중동 무력 충돌 및 홍해 봉쇄 우려.
인플레이션 헷지자산 급등.

[핵심 인사이트]: 극단적인 위험 선호(AI)와 위험 회피(금/유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 시장 환경

나흘째 사이드카, 6,700선 단숨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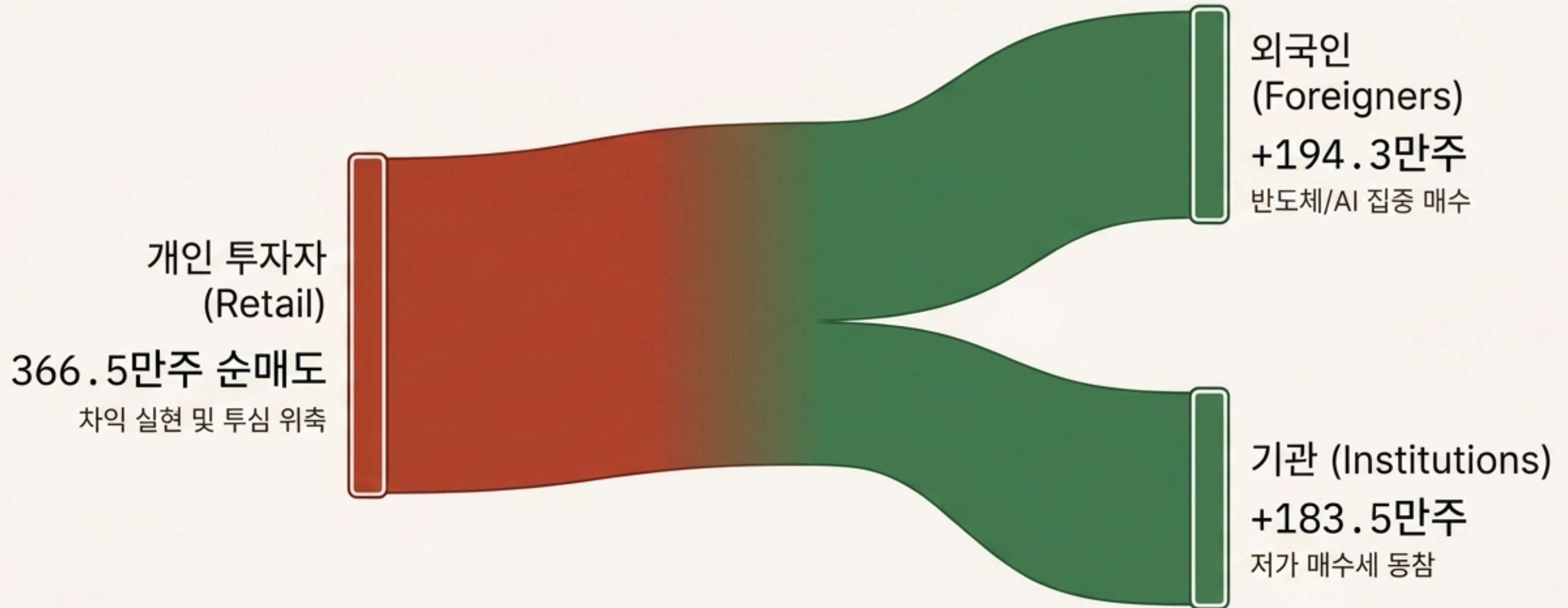


KOSPI 6,747.95 (+3.56%)
| KOSDAQ 753.34 (+0.49%)

지수 견인 주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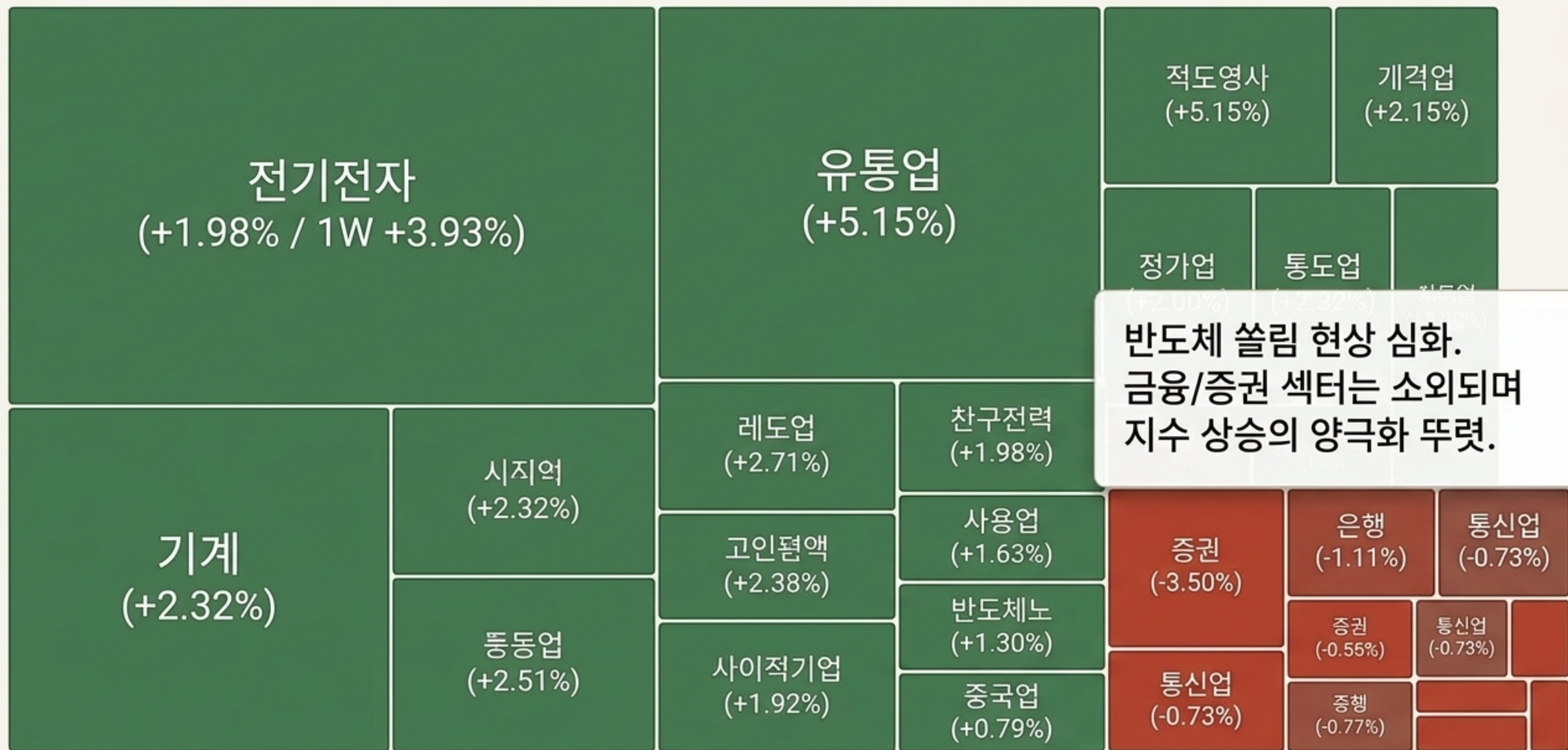
삼성전자	259,000원 (+6.15%)	시총 1,514조
SK하이닉스	1,836,000원 (+4.08%)	시총 1,308조
NAVER	193,000원 (+3.82%)	시총 30.3조

6,000선 바닥론 속, 포모(FOMO) 심리 자극하며 저가 매수세 유입.



개미 던지자 2조 '줍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코스피 3.6% 급등을 견인하며 주도권 손바뀜 발생.

Sector Treemap





DATA

미국 증시 공매도 잔고 사상 최대

D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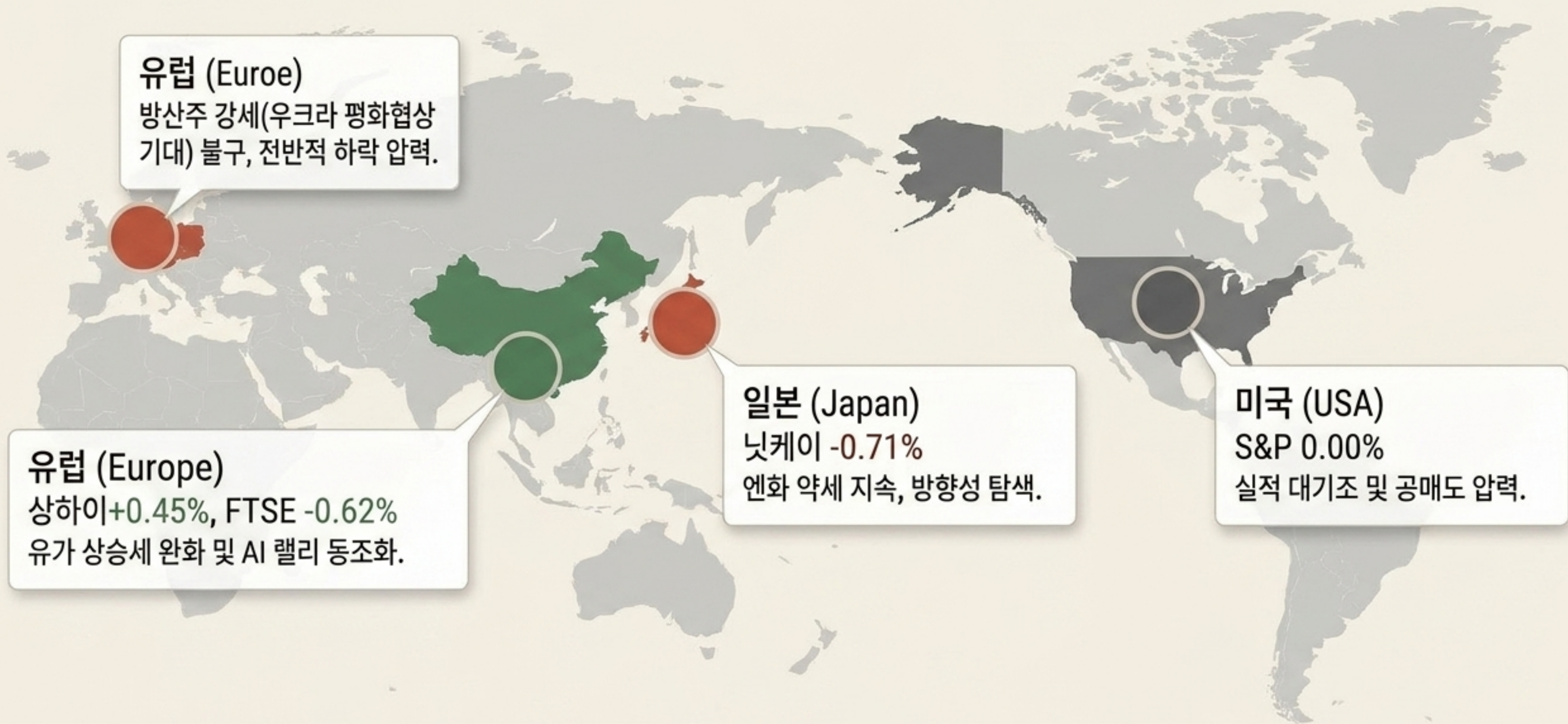
AI 투자 과열 우려 및 대형 기술주 실적 관망세
(Wait-and-See).

DATA

기관의 주식 선호 및 ETF 자금 유입

DRIVER

블랙록(BlackRock)의 주식 선호 유지 (장기 국채 대비).
서학개미 순매수액 5개월 만에 최고치 갱신, 유동성
공급 지속.



글로벌 자금의 욕식 가리기. AI머니가 아시아(한국/중국)로 집중되는 반면, 타 지역은 매크로 리스크에 짓눌림.

에너지/원자재

WTI 원유 \$82.84 (+\$2.62)



올해 120달러 전망 대두. OPEC 감산 연장 기대.

안전자산/귀금속

금(XAU) \$500 (+\$18)



6거래일 만에 상승.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 피난처.

채권/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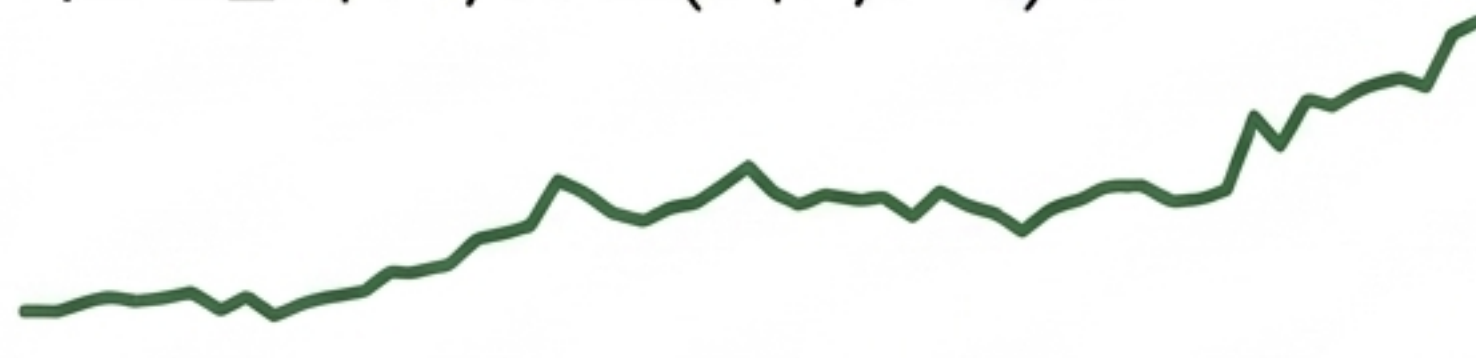
美 국채 10년물 4.588% (+5bp)



FOMC 매파 기조 및 인플레이 재점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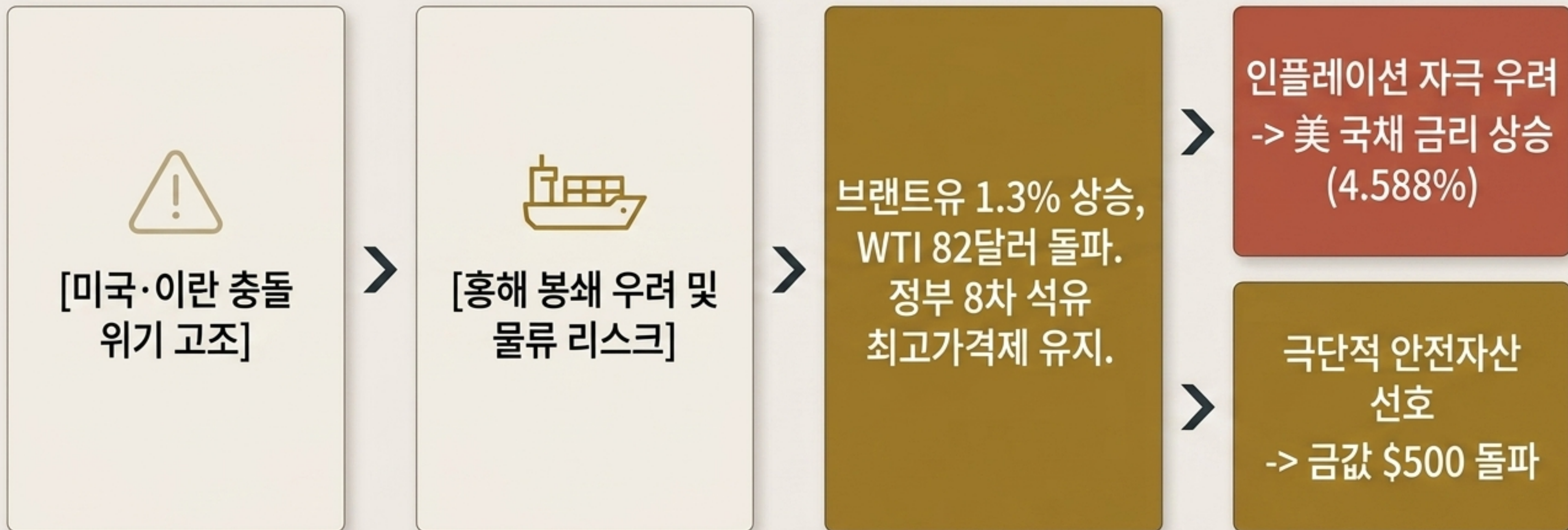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67,350 (+\$1,240)



지정학적 리스크와 별개로 ETF 순유입 지속되며
리스크 자산 동조화.

Geopolitical Impact Chain





현재 시장은 '성장'을 포기할 수도,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AI 주도주로 수익을 추구(Long)하는 동시에, FICC 자산으로
매크로 블랙스완에 대비(Hedge)하는 양극단 바벨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7/21 ~ 7/28

7/22
(Wednesday)

TSLA & GOOGL

미국 M7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7/25
(Thursday)

7/26
(Friday)

7/27

7/28

AI 랠리의 시험대

실적 증명 여부에 따라 KOSPI 반도체 투심 및
미국 내 **공매도** **숏스퀴즈** 방향성 결정.

매크로 지표 주시

유가 변동성에 따른 중앙은행(ECB, Fed)의
금리 경로 재평가 지속.

LONG (주도주 추종)

Target: 국내 AI·반도체
우량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Rationale: 6700선
회복 및 외국인 대규모 매
수 확인. 실적 모멘텀 유효.
6600~6700 구간 분할
매수 검토.

SHORT / AVOID (과열 및 소외주 경계)

Target: 금융/증권 등
소외 섹터 및 단순 테마주.

Rationale: 증시
양극화 심화 및 PBR 밴드
과열 경고(6000 바닥론)
상존. 추격 매수 자제.

HEDGE (매크로 방어)

Target: 금, 원유 관련
자산 및 비트코인.

Rationale: 미국-이란
긴장,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를 위한 실물/안전자산
비중 확대 필수.